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y 26, 2022 Vol. 815

“한민족 통일, 오직 복음 안에서 찾아야”

각 분야의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복음 통일의 길을 모색한다.

“글로벌복음통일전문가 연합네트워크(대표 임현수 목사)”는 오는 8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휴스턴의 한빛장로교회(담임 정영락 목사)에서 제3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가세미나(대회장 임현수 목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를 개최하고, 각 분야의 통일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동안 각 교회나 단체가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북한 선교를 반성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가들과 차세대가 실제적인 토론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미주 청년들에게 복음통일의 사명을 일깨우고,



글로벌복음통일전문가 연합네트워크 대표 임현수 목사

복음 통일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강사로는 임현수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고

명진 목사, 에스더 기도운동 이영희 교수, 김학송 선교사, 두리하나 전기원 목사, 한동대 송인호 교수, 강석진 목사, 동아대 강

제3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 컨퍼런스 휴스턴에서 개최

동완 교수, 전 연변과기대 정규재 목사, 박상원 목사, 윤학렬 감독, 조평세 박사, 탈북자 김연영 자매 등이 나선다.

특히 한국의 각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15명의 탈북신학생들의 증언과 비전을 통해 복음 통일을 향한 실천적 자세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미주 한인교단들의 사무총장과 총무, 교단 선교 실무진을 초청해 복음 통일 준비를 위한 연합체를 구성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대회장 임현수 목사는 “각 분야의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연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한국과 미

국 등 전세계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년간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 복음 통일을 위한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컨퍼런스를 총괄하는 박상원 목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화평인데, 통일도 바로 성경의 복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미주의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고, 북한의 실상을 조명하면서 통일의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해법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온라인 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 425)775-7477

美 유권자 78% “아동 대상 외과적 성전환 수술 반대”



성전환 화장실 표기. ©크리스천포스트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외과적 성전환 수술’과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교육’에 반대하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같은 견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서밋미니스트리는 맥로린&어소시에이츠와 함께 총

보복 두려움 때문에 견해 밝히는 것은 꺼려

선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LGBT 문제, 특히 미성년자의 신체 절단 수술 및 어린이들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했다.

한 설문조사는 참가자들에게 성전환주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특히 성전환주의가 “축하해야 할 건강한 인간의 상태라고 믿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 이에 부정적 답변을 한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대다수인 56%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건강한 인간의 상태라고 믿지 않는다”고, 27%는 “이러한 견해를 유지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한 반면, 29%는 “이 문제와 관련된 신념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미국인의 32%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건강한 인간의 상태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응답은 인구 통계학적 하위 그룹 간의 당파적 분열을 반영했다. 대다수

의 진보주의자(61%),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성과를 승인하는 사람들(52%), 민주당원(51%) 및 민주당원에게 투표할 계획이 있는 이들은 트랜스젠더를 건강한 인간의 상태로 간주했다.

한편 설문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78%)는 “성별 혼동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들은 유방 조직 제거 및 고환 제거 등을 포함한 생식기 절단 수술을 받기 위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응답자의 9%는 “성별 혼동을 겪는 아동이 영구적인 성별의 변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지!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러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러시

뱅크러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 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 국제이민법 USA 이사장
(원) 남가주 교외법률의 고문 변호사
(원) 재미 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원) 중부 상공회의사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예장 대신 총회장 이정현 목사, 남가주 목회자 세미나 인도



양곡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이정현 목사 ©기독교일보



예장 대신 총회장 이정현 목사 남가주 목회자 세미나 주요 참석자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예배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의미 전해

예장 대신 총회장 이정현 목사가 지난 18일, 엘에이를 방문해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다. 세미나에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전·현직 회장들과 엘에이카운티 교협, 남가주 목사회 임원들이 참석해 대신 총회 임원단과 교류했다.

미주양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정현 목사는 “한장으로 관통하는 성경의 예배사”라는 주제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예배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정현 목사는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

혜에 감사하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나아가 형식에 맞추어 드렸다”며 “이는 신약보다 감각적이며 생생하고 적극적이었지만 형식과 습관에 치우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게 해드렸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이어 신약의 예배에 대해 소개하면서 “구약 말에 등장한 회당 예배는 신약예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

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의를 마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며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례(세례와 성찬)를 첨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장 대신 총무 조강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고단은 노회중심, 목회중심, 선교중심의 세가지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다”며 “1961년에 설립되어 작년에 60주년기념대회를 갖고 김치선 박사 전집을 출판하는 등 한국교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등 연합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현진 기자

KCMUSA 창립 20주년 맞아 “미주한인교회사” 발간

KCMUSA(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재단이사장 박희민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미주한인교회사”를 발간한다.

미주 1세 이민자들의 눈물과 땀의 발자취로 개척된 한인교회의 신앙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 세대에게 한인교회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KCMUSA 발간하는 “미주한인교회사”는 이민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 교회와 지역, 교단을 초월하는 포괄적인 이민교회사로 이민교회 경험 목회자 1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한데 묶을 계획이다.

또한 1904년 하와이 이민부터 1960년대 미국 본토의 정착 시기까지, 그리고 1970년대 한인교회 부흥의 시대부터 2000년대 교회의 정체 시기까지를 담은 이민교회의 발자취가 수록된다. 또한 미 50개 주 최초의 한인교회를 찾아 역사를 되짚어 보고, 미주한인교회들이 소속된 25개 교단에 대한 역사도 소개된다.

대표 집필자인 김홍기 박사(전 감신대 총장)는 보스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LA, 하와이 등 6개 도시를 순회하고 각 지역의 기록보관소를 방문해 한인교회 역사를 고증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박희민 목사는 “미주한인교회 목회자가 1세 중심에서 이젠 1.5세, 2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1세

목회자나 초기 성도들의 별세 등으로 인하여 이민교회 역사적 기억과 자료들이 크게 소실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회문화적 환경이 온라인과 디지털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어 더 이상 지면으로 된 역사기록이 무의미해지기 전에 책으로 완성된 이민교회사의 출간이 필요하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박 목사는 또 “이민교회가 고통받으면서 세대가 교체된 성도들의 개척교회 역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 때문에 교회가 걸어온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매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민 100년을 넘어 이민 150년, 200년의 역사를 내다보는 귀중한 교회역사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미주한

인교회사 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주한인교회사” 출판위원장은 조명한 목사(크리스천 위클리 발행인)가, 출판 자문위원으로는 김찬희 박사(클레어몬트신학대학 명예교수), 남종성 목사[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 전 총회장], 박동건 목사[북미주개혁교회(CRC) 전 한인 코디네이터], 신원규 목사[미주복음주의장로회(KEPCA) 총회장], 심상은 목사[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현 부총회장], 오세훈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이상명 목사(미주 장신대 총장), 이상복 목사[미주성결교회(KECA) 전 총회장], 이승중 목사[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대표의장], 이창민 목사(북미주 본토 최초의 한인교회 담임, UMC)가 위촉됐다.

한편 “미주한인교회사”는 600페이지 분량으로 6월 말 원고 초교를 마치고 디자인과 교정, 인쇄를 거쳐 10월경 미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지난 5일 LA소재 JJ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미주한인교회사 출판 자문위원 위촉식 기념촬영. 앞줄 왼쪽부터 조명한 목사, 박희민 목사, 김찬희 박사, 이상복 목사. 뒷줄 왼쪽부터 이상명 총장, 신원규 목사, 오세훈 목사, 남종성 목사, 이창민 목사, 심상은 목사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GMS 미주 AMTC 훈련원, 11명 선교사 배출

GMS 총회세계선교회 미주 AMTC 제 9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 및 임명식 가져

GMS 총회세계선교회는 지난 19일, LA 열린문교회(담임 박헌성 목사)에서 미주 AMTC 제 9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 및 임명식을 갖고 11명의 선교사를 배출했다.

선교사 임명을 받은 11명의 선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서약했다.

GMS 총회세계선교회 산하 미주 AMTC 선교사 훈련원은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정식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30여명의 선교학자, 목회자, 선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선교사들에게 권면한 박기호 교수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세계 복음화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 받은 동역자들”이라며 “선교의 일선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사역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분량에 따라 주 앞에 충성하는 삶”이라며 “공동체를 해치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독자적 사역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 사역, 팀 사역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자”고 권면했다.

AMTC 이사 박헌성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한 모든 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일꾼”이라며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맡겨진 사역지에서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드러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미주 AMTC 제9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 및 임명식 ©기독일보

AMTC 강사로 참여했던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는 “전세계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선교사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며 “힘들고 어려울 때 마다 세상이 아

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AMTC 이사회 총무 문상무 목사의 인도로 AMTC

이사인 이상돈 목사가 “명령과 사명”(마28:19-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임명식은 박무용 GMS 증경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라크마 레퀴엠 연주회, 우크라이나 ‘평화’ 한마음으로 기원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 코랄(대표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 이하 라크마)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로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했다.

라크마는 지난 15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란 주제로 세인트 폴 성당에서 연주회를 개최하고 모짜르트의 레퀴엠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전쟁에서 희생 당한자들을 위로했다.

또한 가야금 합주로 “여호와 나의 목사시니”(시23편)을 연주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정서적 동질감과 연대를 확인했다.

레퀴엠 연주에는 라크마 합창단과, 월드미션대학교 챔버콰이어,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



세인트 폴 성당에서 열린 라크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 연주회 ©기독일보

트라를 비롯해 소프라노 이영게르, 테너 아놀드 리빙스톤, 베이스 벤 로이 등 유명 음악인들

이 출연해 격조 높은 음악을 선사했다.

이번 연주회에 동참한 LA 우크라이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맥심 쿠진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준 남가주 한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윤임상 감독은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도 동일하게 인도하심을 믿는다”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한마음으로 기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라크마는 이번 연주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에 자체 헌금을 더해, 총 1만 달러를 우크라이나 문화센터에 전달했다.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의뢰하며 양광이다
Righteous Outlaw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원), 주성태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종필교수(에스디대학교), 송정영목사(복음선대 공회대표), 권준목사(중앙리이주대표), 신정민목사(복음선대 대표이사), 유권지목사(동일교회대표), 김진석목사(KCC공동대표)

박성원 목사 책의 편지자
* 책의 복음에 영감을 주시길 바랍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원/영)과 속편 빛은 그늘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복음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라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불명암 메시지를 울립니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에 혜택을 받는 세무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 세계 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Again, 좋은비전교회!
교회설립 3주년 및 헌당 감사 예배

라하브라 지역에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롭게 단장한 좋은비전교회가 설립3주년 및 헌당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일시: 2022년 6월 5일 (주일) 오후 3시

Whittier Blvd
Beach Blvd
Idaho St
La Habra Blvd
Imperial Hwy

좋은비전교회
GOOD VISION CHURCH
Tel. 714-482-3649
1601 West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www.goodvisionchurch.org
담임 최준우 목사

예배 안내

한어권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45분, 2부 오전 10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새벽예배: 평일 오전 5시30분, 토요일 오전 6시

영어권 주일예배: 오전 10시15분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금요예배: 오후 8시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54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2022 KIMNET 국제 선교지도자 포럼이 열린다”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열렸다. 필자는 지난 10여 년간 킴넷 모임에 참여하면서 많은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사역 정보나 노하우 등을 교환하면서 폭넓은 교제를 해왔다. 이번에도 참여한 160명의 선교사 및 선교 단체의 소개와 리포트를 통해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헌신과 열정을 알게 되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이번 포럼에서 첫 시간 환영사를 두 분이 했다. 한 분은 미국의 선교 전략가로 랄프 윈터 목사와 함께 10/40 창과 미전도 종족 선교 현황을 알려 준 루이스 부시 목사가 하였다. 미주에서 한인 선교 사역자들이 연합하여 세워 가는 선교 동역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킴넷을 축복하면서 갖는 기대를 말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강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전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열정적인 선교를 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한국교회의 강력한 선교 리더십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앞당기고 있음을 전하며 도전을 주었다.

다음으로 환영사를 전한 분은 형제교회의 담임 목사인 권준 목사였다. 킴넷 국제 선교지도자 포럼을 위해 본 교회가 쓰임 받는 것에 큰 기쁨을 갖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다. 이 모임이 세계 선교 동역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을 축복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 세대를 위한 EM 목사들과 그들의 멘토들이 미국 현지 선교 목회자들도 참여한 것이 특별한 시도였다. 루이스 부시를 포함 미네소타 그레이스 교회의 담임인 스티브 헤리슨 목사 등 여러 명의 미국교회 목사님들이 선교 동역의 꿈을 갖고 함께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선교 포럼에 강의를 맡은 각 선교 단체의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값진 달란트를 통해 사역하는 선교

보고를 하였다. 은혜한인교회가 이끄는 GMI 선교회는 글로벌 교회 개척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필라델피아 PGM 선교회는 7 Core Ministry Movement의 방향을 잡고 각 방면의 전문적 선교 후원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 GSGM 선교회는 다변화되는 국제 변화에 선교를 시도하는 개인전도자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실질적인 선교 전략을 소개하였다. Seed 선교회는 글로벌 선교를 수행하는 지역교회를 위한 선교 전략을 체계 있게 제시하였다. GP 선교회는 국제 선교 리더십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UBF 선교회는 대도시에서 특히 캠퍼스 선교 전략을 갖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선교 동역 사역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사역을 발표하였다.

InterCP International 선교회는 선교의 마지막 강력한 필드인 이슬람권 선교를 뚫기 위한 최전방 전문인 선교 단체의 현황과 그들이 뚫고 있는 견고한 이슬람권의 선교 전략 그리고 현재 선교 상황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사역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주에서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들의 전하는 교회의 세계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들은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주는 도전을 갖게 하였다.

이번 킴넷 포럼은 미주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 단체들의 연합과 선교 동역을 위한 영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세계선교를 이끌기 위한 진보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선교 동역을 기쁘시게 여기실 것을 믿는다.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⑫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의 의미(2)”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십자가를 보고 개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그는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성지 순례와 예수님 유적발굴을 후원합니다. 그때 성지 순례와 예수님 유적발굴을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주도하였고, 헬레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알려줍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성지를 찾아간 헬레나는 골고다에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예수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레나는 세 개 십자가를 두고 중병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셋 중에 한 십자가에서 그 환자가 치유되자 그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로 인정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가 환상을 보고 회심한 것은 기독교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저서 “콘스탄틴의 생애(Life of Constantine)”에서 콘스탄틴 황제의 회심과 그의 신앙생활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황제의 십자가 체험을 소개합니다.

콘스탄틴은 그가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 중요한 전투를 치를 때 예수님 십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페인, 영국 그리고 골(프랑스) 지역 장악과 로마 지배를 위해 중요한 ‘밀비안(Milvian)다리’ 전투를 앞두고 기도했는데 하늘에 십자가 형상이 보이고 “이것으로 승리하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광경을 콘스탄틴과 그의 군대가 함께 보고 모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밤 콘스탄틴은 꿈을 꾸니다. 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십자가를 보여 주시고, “이것으로 승리하라!”라고 명령하셨답니다. 콘스탄틴은 순종했고 그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콘스탄틴은 승리하였고 실권을 장악한 로마 황제가 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합니다.

콘스탄틴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의미로 십자가형을 폐지합니다. 로마제국은 이후에 십자가 사형은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기독교 신앙의 상징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의아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십자가는 초대교회 사역과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행 4:10, 5:30, 갈 6:14). 그런데 십자가가 4세기 콘스탄틴 이후에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 의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십자가로 번역하는 헬라어(스타우로스)는 긴 장대, 혹은 긴 막대기로 번역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스타우로오)는 ‘나무에 매달다(마27:44)’ 혹은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적 일체감(롬6:6, 갈2:20)’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이 말하는 십자가는 현대 교회가 사용하는 십형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전까지 교회는 십자가(Cross)가 아닌 나무형틀에 매달린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헬렌이 발견한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금 우리가 보는 십형 십자가(라틴 십자가)였고, 콘스탄틴이 환상으로 보았던 십자가도 십형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형 십자가(라틴 십자가)를 공식적인 기독교 신앙의 상징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십자가 숭배 사상이 등장했을까요? 사실 십자가 숭배는 바벨론 역사에 등장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티무즈(Timuz)신의 상징물이 T자형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십자가 기원을 말할 때 앗수르(매달아 죽이는 사형법 역사)와 바빌론(십자가 숭배의 기원)을 언급합니다.

콘스탄틴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당을 성지에 건축하면서 십형 십자가를 게시했고 황제가 사랑하고 사용하는 십자가는 전 교회가 사랑하고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콘스탄틴의 밀비안 다리 전투의 일화를 아는 로마 군단장들은 십자가를 자신들의 군단 부대기(Flag of Corps)에 달았습니다. 나중에 기독교 신자가 된 각급 부대 지휘관들도 부대 단결을 도모하고 승리를 기원하며 십자가를 부대기에 달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갖는 의미를 찾았고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이레네우스는 소위 “총괄갱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아담으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오리겐이 주장한 사탄 보상설이나 피터 아벨라드(Peter Abelard)가 설명한 도덕 감화설 등등이 있습니다. 다소 문제도 있고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모두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축복을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헬라와 로마 시대에서 십자가는 치욕과 저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이해하며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희생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갈릴리선교교회 성전이전 및 봉헌감사예배

할렐루야! 갈릴리선교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비전으로 세워져가는 갈릴리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을 구입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셔서 축하와 축복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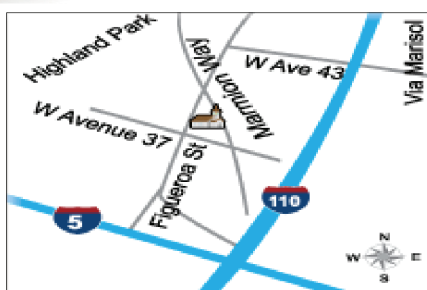


담임목사 한천영 외 성도 일동

2022년 6월 5일(주일) 오후 4시 | 갈릴리선교교회



- 예배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청소년: 오전 11:00
어린이: 오전 11:00
 -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요일: 오전 6:30
 - 목장예배 금요일: 목장별로
 - 살공부 화, 수요일: 오후 7:30



갈릴리선교교회는
오직 예수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Galilee Mission Church
3721 Marmion Way LA CA 90065
323.735.6412 | www.gmchurch.com

“더불어 사는 세상...매일이 이렇게 행복하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7회 사랑의마당축제

남가주의 발달장애인들의 화합의 장인 제 37회 ‘사랑의 마당 축제’가 지난 14일 사우스 엘몬테 소재 위티어 내로우스 공원(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 750 S. Santa Anita Ave., South El Monte, CA 91733)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사랑의(마당)축제는 매년 5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남가주 장애사역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해 치르는 행사로, 발달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랑과 화합의 축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올해 사랑의 축제는 어느 해 보다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자리였다.

또한 GBC미주복음방송과 해피빌리지, 남가주밀알선교단에



발달장애인 위한 제 37회 사랑의마당축제 ©남가주사진작가협회

서 공동주관하고 Parks Recreation과 Caravan Canopy, 한미은행, 새생명비전교회가 특별 후원하고, 24개 교회와 25개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남가주 밀알선교단 이종희 목사는 “팬데믹 기간 가장 힘들

었던 사람들이 장애인들과 부모들이었다. 집 안에만 있으면서 힘들었던 장애인들이 공원에 나와서 함께 즐기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교회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함께 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는 “장애인은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 신앙공동체와 사회가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라며 “장애인들을 위한

하루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교회가 앞장서 그들을 품어주고 장애 사역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축제는 알바인 은누리교회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이영선 미주복음방송 사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알바인 은누리교회 박신용 목사가 설교했다. 각 부스에 마련된 맛있는 음식으로 점심식사 후에는 댄스 파티와 진 최 무용단의 발레 공연, 사물놀이, 김마루 집사(새생명비전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 봉사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이 백신 차량을 지원해 특별 부스를 마련하고 5세 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Covid-19 백신 및 부스터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푸짐한 선물도 전달했다.

김동욱 기자

“오직 예수” 토박이 예수꾼 백낙규 장로의 영성과 신앙이야기

오래된 비버튼 한인장로교회를 담임했던 백종근 목사가 신간 『하나님 나라에서 개벽을 보다』를 출간했다.



백종근 목사

『하나님 나라에서 개벽을 보다』는 1900년도 남장로교 선교사 하위럼(William W. Harrison)에게 복음을 듣고 전북 익산 동련교회를 설립했던 백낙규 장로의 신앙과 영성에 관한 이야기다.

백낙규 장로(1876-1943)는 저자 백종근 목사의 증조부로, 저자는 백낙규 장로의 생존 시기였던 구한말부터 해방 이전까

지의 신앙여정과 백낙규 장로가 복음을 만나 설립한 동련교회의 사역과 초기교회의 모습을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120년 전 한국교회사 자료와 사진들을 수록해 역사의 한복판에서 격동의 시대를 지나온 백 장로와 초기교회의 역사와 신앙 활동을 자세히 조명하고 있다.

백낙규 장로는 구한말에 태어나 부정부패와 외세의 침략으로 격동을 치던 구한말, 조선의 역사 중 가장 어두운 질곡의 시기에 몰락한 양반으로서 고향을 떠나 동학에 몸을 던졌다. 19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걸고 동학농민항쟁에 뛰어들어 우금치 전투에 참여했었다.

패전으로 실의에 빠져 방황하던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

는 이 땅에 살면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 보고자 몸부림을 쳤으나 패배와 좌절을 맛보았다. 밀려오는 외세에 의해 나라를 잃고 혼돈의 세월을 살았던 백 장로는 그가 만난 복음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애썼다.

하나님 나라에서 비전을 발견한 그는 교회를 세우고 젊은이를 가르치려 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끊임없는 치열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황국화 신민 정책으로 학교가 폐교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탄압의 질은 어둠 가운데 해방을 보지 못하고 향년 6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저자 백종근 목사는 “증조부의 신앙 여정을 추적하는 과정 속에 남장로교 선교 자료에서 그와 관련된 120년 전의 사진과



자료를 우연히 만났을 때의 진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백낙규 장로야말로 격동의 시대에 복음을 따라 실천 신앙과 영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물”

이라고 평가했다.

백 목사는 “역사는 사건 중심의 도시적 나열이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켜 왔던 주체를 바로 인식할 때만 고리처럼 연결된 사실들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다”며 “앞으로는 사건 중심의 연대기적 사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를 만들어온 인물들의 전기적 경험들을 발굴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저자는 전북 군산 출생으로 한양대 공업화학과의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산업연구원(KIET) 책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오스틴 장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졸업하고 비버튼한인장로교회에서 사역했으며 3년 전 은퇴했다.

김동욱 기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도착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알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리스팅 전문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2021년 20년 동안
케를리
DRE #196695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arole Lee Realtor
Cell 714.345.4989

2022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견실한 인력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축. 한인 신학교 최초로 교육학 철학박사과정 TRACS 인가

ats ATIS정회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교육학 철학박사 (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과 e-Library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실 한국어, 영어로 수강 가능 스페인어, 중국어, 인니어 동시통역 수강가능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Hybrid 강의 (대면미팅 및 Zoom, Distance)

이벤트 1. 교육학 철학박사과정-장학금
TRACS 학위 인가 기념으로 2022년 가을학기 교육학 철학박사과정 등록 신청시 20% 장학금을추가 지급함
박사원 연락처: 714-365-1123, doctoral@gm.edu

이벤트 2. Early Bird 장학금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절차를 6월 30일 전에 완료하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이벤트 3. 화상입학설명회
6월 17일 오후 4시 Zoom
7월 15일 오후 4시 Zoom
Zoom 컨퍼런스ID:648-961-5938 pw: 2020
*학교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안내
*참석하시는 모든 분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드림
*학교홈페이지 GM.EDU에서 LiveChat으로 입학 상담 가능

Tel : 714-525-0088(대표) Ext 101 입학문의 email :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한국 수도권 교회들도 43% “교회학교 없다”

예장 통합 서울서북노회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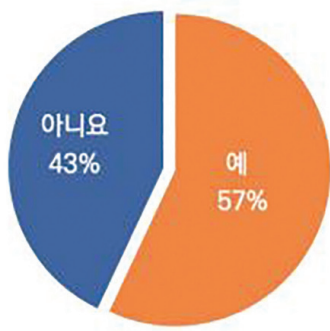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 다음세대 숫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시골이 아닌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상당수가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일산) 및 파주를 지역으로 하는 예장 통합 서울서북노회는 여론조사 기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215개 소속 교회 목사(담임 혹은 교육 담당, 1개 교회당 대표자 1명)들을 대상으로 교회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 중 실제 응답한 목사의 수는 155명이었다.

◆ 어린이 및 학생 수 20명 이하가 44%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연구소)가 10일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143’를 통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교회 가운데

[그림] 교회학교 운영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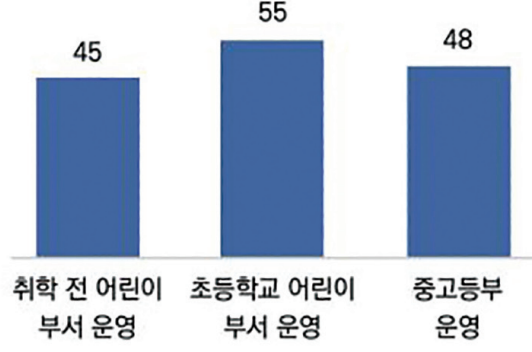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은 57%였다. 나머지 43%의 교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적어서 교회학교 운영을 못하고 있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또 이 노회에서 어린이 및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교회가 44%였다. 501명 이상 교회는 5%였다. 연구소는 “서울서북노회 교회학교 중앙값(교회학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교회부터 가장 적은 교회까지 나열해 중간에 있는 교회의 학생 수)은 27

[그림] 부서별 운영률 (%)



명으로서 이 노회 교회학교의 절반은 어린이 및 학생 수가 27명 이하로서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했다.

◆ 교회학교 성장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3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탈 종교화 흐름이 교회학교에도 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28%), ‘학원·공부

로 인한 시간 부족’(28%), ‘전도 부족’(27%),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19%) 등이 뒤를 이었다.

◆ “신앙중심 가정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교회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1+2순위)으로는 ‘학원·공부보다 주일 교회학교를 우선시 하도록 인식 전환’과 ‘부모의 교회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강화’가 모두 28%로 가

장 많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는 “교회학교 문제 해결은 신앙중심의 가정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했다.

◆ 부모교육 및 미디어·전담 사역자 확보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회학교 준비 사항(1+2순위)으로는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51%)이 1순위로 꼽혔다. 연구소는 “1주일 1회의 교회 교육으로는 온전한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성찰에서 나온 응답”이라고 했다.

2순위는 ‘동영상 촬영, 제작, 편집 등을 위한 미디어 관련 시설 확충’(33%)이었다. 연구소는 “이는 온라인 예배·교육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사회의 특성상 동영상 교재의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교사’(32%)와 ‘교육 전담 사역자’(30%) 확보도 준비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꼽혔다.

이지희 기자

분당우리교회 20주년... 2만명→5천명, 그 파격의 역사

최근 29개 교회 분립... 드림센터도 곧 사회환원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가 다가오는 주일인 22일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 교회는 지난 2002년 5월 7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故 옥한흠 목사 생전, 그가 담임하던 사랑의교회에서 10여년간 청년사역을 담당한 이찬수 목사가 분당우리교회를 개척했다. 이 목사는 개척 후 3년여가 지난 2005년 11월 30일 이 교회 위임목사가 됐다.

교회는 성장을 거듭했지만 어느 대형교회들과는 다른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우선 별도의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고,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렸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예배 외 주중 활동을 위해 분당에 ‘드림센터’를 구입, 2011년 12월 4일부터 사용해 오고 있다.

이 교회가 걸어온 길에서 또 다른 ‘파격’을 꼽자면 단연 ‘일만

성도 파송운동’이다. 이는 이찬수 목사가 지난 2012년 7월 1일 주일예배에서 공식화 했다. △전성도의 최소 절반인 1만 명에서 최대 4분의 3인 1만5천 명까지를 파송하고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를 앞으로 10년 간 사용한 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목사는 마침내 지난 2020년 2월 23일 주일설교에서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1년 분당우리교회를 30개의 교구로 편성하고, 1년간 준비한 후 2022년 30개 교회로 분립·개척한다는 것이었는데, 올해 3월 분립할 29개 교구(교회 외부에서 청빙한 1명의 목회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사의 표명)의 교역자와 지역을 결정하고, 얼마 전 분립을 완료했다. 이후 현재 분당우리교회에 남은 교인 수는 5천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드림센터도



분당우리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송림중고등학교 내 강당

곧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분당우리교회가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추진했던 건 지역교회들과의 상생을 위한 이찬수 목사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 목사에 따르면 분당우리교회 개척 당시 교인들이 몰려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부흥하면 춤을 추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목사는 “아무리 보아도 비정상이었다”며 “미자립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한국교회에서 분당우리교회에만 교인들이 몰려드는 건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이런 생각에 분당우리교회는 새 신자 외에는 기존 신자의 등록을 받지 않기도 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2년, 당시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

지난 10년은 우리를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시간들이었다. 예배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세대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다”며 “이런 내적인 변화는 주변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것”이라며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 없이 전해지고, 확장되길 원한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와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의 길은 이 목사의 기대대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의 여정”이었을까? 그 판단은 이 목사와 분당우리교회를 바라보는 한국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몫이다. 김진영 기자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NOW OFFERING

IB PYP(K~5TH) • MYP(6TH~10TH)
DP(11TH~12TH)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C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
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e-nca.org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격려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성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213) 272-6031 (371 &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교차로)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교동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평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교동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해가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술 AM 1560
매일 오찬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323) 897-5751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교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초.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가정)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ia@hnsi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존 파이퍼 “일부 목사들, 거룩의 중요성 설교 안해”



존 파이퍼 목사 ©DesiringGod.org

흘림이 어떻게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만 설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가진 많은 목사들이 종종 은혜가 어떻게 죄를 정복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 미국의 코들링 문화에 너무 깊이 감염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들은 화를 내는 것에 과민할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누군가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웹사이트 디자이너인 존 파이퍼 목사가 최근 일부 목사들이 은밀하고 죄로 가득 찬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그는 ‘투게더 포 더 가스펠’(Together For The Gospel) 컨퍼런스에 참석해 “어떤 목사들은 자신의 은밀한 삶이 도덕적으로 위태롭기 때문에 성결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교를 꺼린다”며 “하찮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적이고 불경건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다. 그들은 음란물에 손을 대고 있거나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T4G 컨퍼런스는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캔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렸다.

그는 “거룩함의 긴급성을 설교하기를 꺼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목회자의 뿌리 깊은 불안이다. 우리의 불안은 다양한 곳에서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어떤 목회자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긴급성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만 설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장사지내신 사역과 기독교인이 죄를 죽이는 일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 목회자들은 거룩에 대한 성경적 요구를 함으로 자기 백성의 양심을 압박하는 것을 꺼려한다”라며 “그런 목사들에게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성경적 위험을 다루려고 하지 않기를 간청하고 싶다. 거룩함을 위한 기독교인의 투쟁이 영광스럽게도 복음적인 방식으로 죄의 용서와 연결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재정 거래에서 부정직하다. 그들은 음식에 속박되어 계속해서 과식한다. 그들은 주의 일에 대한 자녀들의 가르침을 등한히 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밤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한다)”라고 말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일부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피

이미경 기자

부목사에게 신장이식하는 美 담임목사,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



네브래스카주 벨뷰 시에 있는 벨뷰기독교센터의 부목사인 월터 후커(왼쪽)가 2022년 8월 2일 담임목사인 앤디 카우프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장을 기증할 것이라고 밝히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벨뷰 크리스천 센터 페이스북

신장 기증자를 찾던 미국 교회의 한 부목사에게 담임목사가 이식이 적합한 기증자로 선정돼 올해 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주 ‘벨뷰기독교센터’의 부목사인 월터 후커(Walter Hooker)는 수개월간 기증자를 찾던 가운데, 담임목사인 앤디 카우프(Andy Kaup)가 조직적합 항원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신장 기증을 결심한 카우프 목사는 세 자녀의 아버지이며, 후커 목사 역시 세 자녀와 입급 손주를 두고 있다. 지난주 벨뷰기독교센터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에서 후커는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8월 2일 수술을 받게 됐다. 믿기지 않는 것”이라며 “여러분, 기증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국립신장재단(National Kidney Foundation)에 따르면, 국가 신장이식 대기자 명단에 추가될 경우, 일치하는 이식할 사람을 찾기까지 통상 3-5년이 소요되며, 일부 지역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카우프는 교인들에게 부목사를 위

해 신장 기증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한 사연을 간증했다.

카우프 목사는 “후커와 멜바(후커의 아내)가 하나님이 쓰고 계신 이야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상황은 불가능하고 무서워 보였다. 두려움 그 이상이였다”라며 “우리 대부분은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나쁜지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과 가족 전체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계속 말했다”고 했다.

그는 아내 미셸과 이야기를 나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기증자를 찾는 과정을 시작했다.

카우프는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일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며 “당신이 써 오셨습니까?”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일의 저자입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고자 몇 가지 시험을 거쳤다. 계속된 검증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도록 길을 내신 거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팀 켈러의 낙태권 제한 반대, 어떻게 볼 것인가



팀 켈러 목사.

해 말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성경은 우상숭배와 낙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모두 중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규범을 다원적 민주주의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하진 않는다”라며 “나는 낙태가 죄임을 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나라에서 낙태를 줄이거나 끝내는 최선의 정치적 정책이나,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교회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차이로 인해 분열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베가키스는 “켈러가 낙태를 ‘살인’이라고 말한 것은 옳다. 그러나 이 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며 “첫째는 켈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살인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이는 이상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베가키스는 “낙태는 아기를 죽이고 생명을 영원히 끝낸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 어떤 정당한 치료법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켈러의 대답은 ‘그렇다’고 가정하지만 왜 그런지 만족스러운 설명을 주진 못한다”고 했다.

그는 켈러의 주장이 가진 두 번째 문제로 “불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밝히지 않은 채, 낙태 정치로 인해 분열되어선 안 된다고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독교인의 친생명적 정치적 견해가 과문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면서 “예컨대, 낙태 찬성 법안을 추진하는 정치인이 교인일 경우,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노예 소유주를 파문하는 것이 옳듯 그를 파문해야 할 수도 있다”며 “오늘날 낙태의 악에 대해 침묵하는 교회들을 애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칼럼니스트이자 변호사인 스티븐 베가키스(Steven Begakis)가 낙태권 제한에 반대 입장을 밝힌 팀 켈러(Tim Keller) 목사에게 반박했다.

베가키스는 11일 칼럼에서 “[로 대 웨이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초안이 유출되기 며칠 전, 저명한 신학자이며 뉴욕시 리디머장로교회 목사인 팀 켈러가 낙태 정치를 두고 기독교인이 분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도발적인 트윗을 썼다”면서 글의 일부를 인용했다.

인용 글에서 팀 켈러牧사는 “나는 최근에 교회가 정치적 차이로 인해 연합이나 교제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썼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성경적 도덕 규범이 있다”면서 “첫째, 우상이나 참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죄이며, 둘째, 살인해서는 안 된다. 만일 복음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 끔찍한 죄가 합법화되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아기를 낙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할지 묻는다면, ‘예’라고 대답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죄는 합법화하고 두 번째 죄는 불법이며, 왜 중요한 도덕적, 정치적 논점에 대

美 루터교 은퇴 바람...목회자 600여 명 부족



미국 북음주의 루터교 제15차 총회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진행됐다. ©페이스북

반 년 넘도록 담임목사 공백 상태인 교회도

ELCA 소속 언약루터교회(Atonement Lutheran Church) 평신도 지도자 크리스틴 라비(Kristin LaVe)는 현지 매체인 KTVQ와의 인터뷰에서 “대런 폴슨 담임목사가 지난해 9월 사임한 후, 새로운 목회자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교단 내 최소 600여 명의 목회자가 부족한 가운데, 새 목회자 부임에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라비는 “ELCA의 몬타나시노드는 35명의 목회자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간 이어진 가운데, 미국 북음주의루터교회(ELCA)가 약 600여 명의 목회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회 행정을 맡고 있는 낸시 루프(Nancy Rupe)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사역자를 기다리는 동안 교회는 매주 설교를 위해 10명에서 12명의 일반 목회자와 은퇴 목회자 목록을 두고 연락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목회자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그녀는 “(목회) 사역에 대한 매력력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그녀는 “아마도 사역에 뛰어 들고 신학교에 다니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일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로 ELCA의 목회자 부족 현상은, 최근 연구에서 점점 더 많은 목회자들이 스트레스, 외로움, 정치적 분열 및 교회의 쇠퇴와 같은 염려로 직장을 그만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서와도 관련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기 전인 2017년 바나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이 약 10세 이상 증가한 56세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 은퇴 연령인 62세보다 6세 적은 것이다.

팬데믹에 막 들어선 2020년 3월 밴더블로먼연구소 CEO이자 설립자인 윌리엄 밴더블로먼은,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교회에서 직임 이직과 목회자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2021년은 이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는 이를 준비했다. 폭풍 해일이 될 것이고, 수많은 오랜 교회 지도자들, 특히 남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은퇴 계획을 앞당기고 있다”며 “향후 5년 이내에 승계에 대해 말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OC재물 주일 9부 예배 오전 8:30
주일 1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월요일 오후 6:00
19514 Resala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9887

OC재물 주일 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오후 7:30
주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2331 W. Chagall Ave., Fullerton, CA 92833
818583-9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s.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영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경환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령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되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아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어찬양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11:00
아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몰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필름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호주성공회 시노드서 주교들 과반 '동성혼 지지'

호주성공회가 최근 5년 만에 개최한 시노드에서 과반수의 주교들이 동성커플의 주례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시노드는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앞선 시노드에서는 동성혼을 지지하는 많은 수정안들이 올라왔으나, 투표 결과 거의 매번 큰 차이로 부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시드니교구의 카니쉬카 라펠(Kanishka Raffel) 대주교는 "동성 커플 간의 결혼 주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 교회의 신앙, 의례, 예식 또는 규율에 어긋나는 것이다. 동성혼을 축복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의식이나 의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 교회의 신앙, 의식, 예식 또는 규율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시노드에서는 단순한 투표 대신 평신도, 성직자, 주교의 3원으로 투표를 진행했고, 평신도는 63대 47, 성직자는 70대 39, 주교는 10대 12, 기권 2표로 기존 입장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

이후 마이클 스테드 주교의 두 번째 동의가 있었다. 그는 "마태복음 19장 4-5절에 있는 결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총회는 간음이란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이뤄진' 결혼 이외의 성적 친밀감을 의미한다는 역사적 견해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평신도는 62대 48, 성직자는 59대 39, 주교는 12대 11로 지지를 보였다.

라펠 대주교는 시노드가 열린 다음날 청원서를 제출하고 "2022년 5월 11일 총회의 다수



시드니교구의 카니쉬카 라펠(Kanishka Raffel) 대주교 ©Anglican Church League

(평신도와 성직자 포함)의 분명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교들이 유감스럽게도 '헌법 제4조에 의거한, 이 교회의 신앙, 예식 또는 규율에 관한 진술

서에 반대 투표를 했다. 청원자들은 주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공동기도서에 반영된 혼인과 혼인의 원칙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한마음으로 지지

하고 이를 분명히 하도록 시노드가 헌신해줄 것을 겸손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서는 바로 통과됐다.

호주 시드니에서 ASK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데이비드 로버트슨 목사는 "분열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 불구하고, 난 호주 교회의 대다수 성경적 기독교인들이 (교단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너무 강하고 많다. 또한 잘 조직돼 있으며 대부분 성경적 진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의 연합이 중요하다. 호주성공회 외부에 있는 이들은 주님께 새롭고 호주성공회를 부흥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나이지리아 기독교 대학생, '신성모독' 혐의로 화형...무슬림 동급생 소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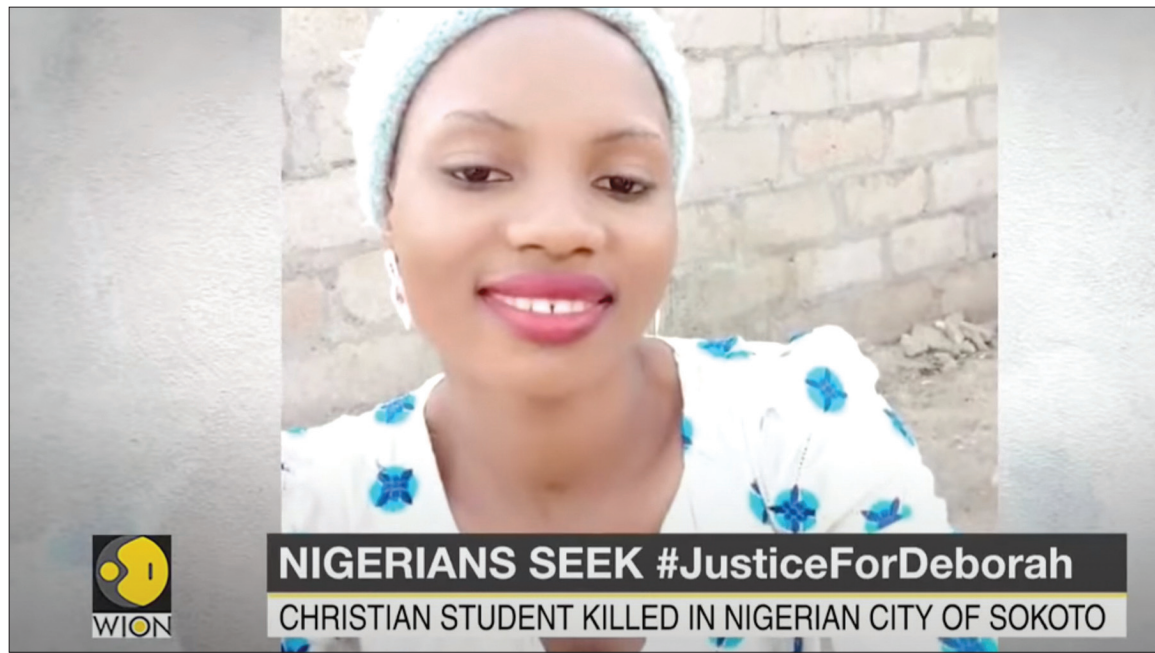
나이지리아 소코토주에서 기독교 여학생이 신성모독 혐의의 문자가 발견되어 무슬림 급우들에게 몰매를 맞은 뒤 화형을 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국제기독교연대(ICC)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소코토주의 세후 사가리 교육대학의 2학년생인 데보라 임마누엘(25)이 교내에서 동급생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나이지리아 위닝올복음주의교회(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 ECWA)를 출석했던 데보라는 무슬림 급우들이 신성모독이라 해석한 왓츠앱 메시지를 보낸 뒤, 온라인상에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남녀 학생들이 데보라에게 모여들었고, 그녀가 왼팔로 머리를 감싼 채 주저앉아 급우들이 막대기로 때리고 돌을 던지면서 "알라후 아크바르(알라가 가장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데보라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무차별 폭행은 계속됐다.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세후 사가리 교육대학의 한 학생은 "무슬림 학생과 교사들이 학



나이지리아 소코토 주의 세후 사가리 교육대학에 재학 중이던 드보라 임마누엘(25)이 신성모독 혐의로 무슬림 동급생들에게 구타 당한 뒤 화형을 당했다. ©WION 뉴스 보도화면 캡처

교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CC에 따르면, 무슬림 학생들은 데보라를 살해한 뒤 대학과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선 채, 기독교인 학생들이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세력인 풀라니 목동과 보코하람,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등의 테러 단체들에 의해 끊임 없이 표적이 되어 납치와 살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카두나주에서는 풀라니 무장세력이 위닝올복음주의교회 소속인 다우다 베이처 목사를 납치한 뒤, 몸값을 지불했음에도 한 달 만에 그를 살해했다.

베이처의 아내는 남편이 납치범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며, 그들의 회개하도록 기도한 것이 살해를 당한 계기가 되었을지 모른다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증언했다.

ICC는 나이지리아를 '2021년 올해의 박해자'로 선정한 바 있

다. 이 보고서는 "나이지리아는 2000년 이후 5만~7만 명이 살해를 당해 지구상에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곳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세계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 USA'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최소 4,650명의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년도의 3,530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또 이 기간에 2,5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납치되어, 1년 전보다 990명이 증가했다.

아남브라에 본부를 둔 '시민자유와 법치를 위한 국제사회(Intersociety)'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폭력이 가장 극심한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200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00만 여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또 그 기간 동안 약 2,000개의 기독교 학교가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았다.

인터소사이어티는 나이지리아의 대규모 집단 폭력이 "과격 한 이슬람주의의 전파에서 비롯된 것"이라 분석했다.

김유진 기자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해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해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 **강준민 칼럼**

흙은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습니다!

저는 요즘 흙을 밟으며 자주 걷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흙을 밟으며 걷는 중에 흙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흙의 소중함을 깨닫고, 흙을 통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흙을 통해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흙에게서 겸손의 지혜를 배웁니다. 흙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가장 안전합니다. 인간은 높은 곳에 오를수록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흙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인간은 높은 곳을 원합니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높은 정상을 탐합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정상은 산소가 희박합니다. 좁습니다.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오래 머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을 정복한 후에는 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높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때로는 높은 정상을 정복하려는 꿈과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교만의 길이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산을 정복한 후에 낮은 데로 임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낮은 데로 임해 섬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둘째, 흙에게서 차별하지 않는 지혜를 배웁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람은 차별당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흙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흙은 씨앗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흙은 사람이 뿌리는 씨앗을 받아 그 씨앗의 종류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흙은 어떤 사람의 씨는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의 씨는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뿌리는 씨를 환대합니다.

흙은 씨앗을 받아 나무를 키우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고, 나무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흙은 그릇이 큰 사람과 같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다양한 사람을 품을 줄 압니다. 흙은 큰 바다와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습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어 회복시키고, 변화시킵니다. 흙은 쓰레기를 비료로 만듭니다. 흙은 씨앗을 변화시켜 곡식으로 만들어 주고, 씨앗을 변화시켜 큰 나무를 만들어 줍니다.

셋째, 흙에게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지혜를 배웁니다. 흙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흙은 엄

마의 젖과 같습니다. 엄마의 젖이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키우는 것처럼 흙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인간이 먹고 생존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흙입니다. 흙이 없으면 먹거리가 없습니다. 먹거리가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흙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땅들이, 흙들이 병들었습니다. 흙이 병들면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흙을 살리는 길은 땅이 쉬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흙이 제공해 주는 먹거리는 정말 다양합니다. 흙은 다양한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씨앗을 품어 다양한 종류의 곡식과 채소와 과실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흙처럼 성숙하게 되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것을 품게 되고, 다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것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똑 같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 하나도,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도 현미경으로 보면 모두 다 다릅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넷째, 흙에게서 기다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흙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흙은 씨앗을 품고 서둘러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서서히 싹을 틔우고 서서히 자라게 합니다. 어떤 씨앗은 흙이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가장 적합한 때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흙은 나무의 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겨울이 되면 흙은 봄을 기다리며 겨울 나무의 뿌리를 조용히 키워줍니다. 그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봄이 되었을 때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해, 싹을 틔우고 꽃을 피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과 영혼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흙이 가르쳐 준 지혜를 따라 살면 좋겠습니다.

연재 **‘꿇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욱선교
박상원 목사

‘늪은 소가 콩밭에 가고 침묵하는 자가 음흉하다’는 말처럼 멍덕이는 절대 함부로 입을 놀

리지 않았다. 또 언제나 낮이 반쯤 나간 표정을 지어서 ‘멍덕’이란 별명이 붙었다. 그런데 멍덕이는 음흉한 계책을 꾸미는 데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돌진하는 나와 달리 멍덕이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일을 꾸렸는데, 무슨 일이든 백전백승으로 성공시켰다. 그렇다 보니 기도회 내에서 멍덕이는 스타였다.

나는 멍덕이 역시 반짝이와 폭풍이와 함께 늘 대동하고 다녔다. 우리는 이렇게 4두 마차로 환상의 조합을 자랑하며 전 지역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다 우

리 네 명은 군수공장을 습격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모두 쫓겨날 뻔했다. 하지만 지인의 도움을 받아 반짝이와 멍덕이는 북한 땅에 돌아갈 수 있었고, 폭풍이는 두만강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그곳에 정착해 북한에 구호물자를 넘기는 일을 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으로 그만 타국으로 쫓겨나 다시는 북한 땅을 밟을 수 없게 되었다. 타국의 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심장이 뒤틀리는 듯한 아픔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이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으시니 타국의 객이 되어 백두산의 험한 산중을 헤매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으셔서 정말 다행이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악귀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소유를 도로 찾겠다고 그보다 더 악한 짓도 서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르나. 하나님의 소유를 누구에게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따라서 도적질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다. 나는 이것을 아주 뒤늦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른다. 언젠가 어느 지방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도적질 못하는 놈과 녀은 머저리라고 한다. 설사 머저리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된다. 제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해도 도적질 자체가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녘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2022 - 2023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 경 진 Senior Pastor Rev. Gyeong Jin Kim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5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2년 5월 1일 ~ 6월 11일
- 선발 결과 발표: 2022년 8월 1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2년 8월 21일 예정

마감일 이후에접수된 신청서나 미비된서류는 선발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선발 인원 00 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2@joyfulccc.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 다녀온 효도관광

지난 주간은 특별히 에녹회 효도관광으로 인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2년 이상이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통제와 격리에 묶여 지내왔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까지 문제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엔데믹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요즘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어두운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교회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효도관광을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이른 아침 예쁘고 화려한 야외복들을 입고 멋진

모자들을 쓰신 믿음의 에녹회원들이 속속 성전에 모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며 극복하는 것이기에, 출발 전 전체 인원의 코비드 키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에녹회원만 79명, 교역자들과 봉사자들 12명을 합쳐서 모두 91명이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성전에서 함께 기도한 후 각 조별로 안전하게 두 대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교역자의 사모들이 며칠 동안 좋은 과일과 야채를 구입해서 씻고 말리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풍성한 구디백과 아침식사 대용의 김밥과 물도 나누어드렸습니다. 특별히 차멀미를 하거나 약하고 힘든 분들을 배려하여 자리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배정에도 미리미리 신경을 썼습니다. 명찰을 목에 두른 효도관광 팀 91명은 맑은 날씨처럼 밝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비록 가는 길에 관공회사

의 차량 한 대가 잠깐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오히려 서로를 섬기는 에녹회원들의 배려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뿐이었습니다.

샌디에고의 등대와 유명한 맛집 필스 바베큐(Phil's BBQ)에서의 점심식사와 미드웨이 항공모함 관람 등 짧지만 내실 있는 여행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갇혀 답답했던 마음에는 은혜의 새바람이 총만했고, 막혔던 벽들이 허물어지듯 함께 웃고 얘기 나누는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출발하고 도착할 때 어르신들을 환송하고 영접하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어서 더욱 아름다웠고, 또 중보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기관들과 성도님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었습

니다. 말세가 될수록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과 여러 큰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빠뜨려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와 대적보다 크시고, 질병과 사망보다 크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함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효도관광이 그랬듯이, 교육국 여름성경학교들과 여러 수련회들, 그리고 나바호 인디안촌, 8차 도미니카 단기선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간증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어둠의 때일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만이 평안과 승리를 이루는 것임을 믿고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연미와 인공미

학창 시절 친구 따라 제주도 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고향이 제주도였기에 따라갔지만, 참 멀게 느껴지는 여행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후, 또 한참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캄캄이었는데, 친구가 부모님과 제주도 방문을 하는 바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서울에서만 살았던 저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주도 시골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고 다시 서울로 상경하여 빌딩 숲들이 보이자 갑자기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는 시골보다는 도시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방문 이후 한국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라면, 자연미와 인공미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말 그대로 자연이었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도 저 멀리 눈 덮인 산들을 볼 수 있고, 산행하며 걷는 길에는 풀을 뜯어먹는 소와 말들이 있어서 말똥 소똥 밟을까 조심하며 걸어야 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한참을 달려 올라가 잡은 산속의 숙소도, 전통적인 게르 형식의 운치 있는 숙소였습니다.



김 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이렇게 한 주를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가는데, 서울은 한마

디로 콘크리트 아파트의 숲이었습니다. 작은 땅 덩어리에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하니, 집을 층층이 높이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한 교회들도 대부분 지하로 파고, 위로 여러 층을 올려지었습니다. 작은 대지에 최대의 건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마 한국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잘 못 보는 친구 목사들을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나이들이 6학년 을 넘다 보니 젊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사역의 비전을 얘기하던 패기는 간데없고 손주 사진 보여주며 자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었

을 때는 꿈을 꾸며 계획하고만 들어가는 인공의 미를 추구했다면, 지금은 잘 지은 아파트에 살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미를 좀 더 추구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침 큐티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인생을 묵상합니다. 자기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왔던 인위적 삶이, 압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삶의 행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응의 삶으로 변해 가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의 미가 아닌, 자연의 미를 더 인식하는 성숙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40yr	\$24	\$30	\$36	\$46	\$67	\$86
50yr	\$43	\$60	\$68	\$97	\$131	\$188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월 보험료/시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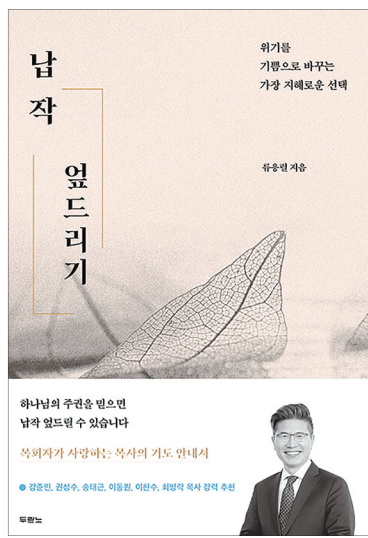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우스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주정부 허가: MTR-190586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Fully Insured & Bonded

기독교는 기도 교다 류응렬 목사 <납작 앞드리기>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



두란노서원이 류응렬 목사(미국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신간 <납작 앞드리기>를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앞드리심으로 써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납다른 통찰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자는 “기도는 관계에서 나온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부탁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겸손’이라고 했다.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삶의 모든 태도에서 겸손하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했다.

그는 “만약 여전히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길 기도한다. 회개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

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회개하게 되는 것”이라며 “주님의 찬란한 영광, 거룩함에 가까이 가면 티끌만한 죄에도 몸서리치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회개의 거룩한 바람이 불 때 위대한 부흥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신다”라고 했다.

이어 “오늘날 신앙인들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게 풍족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영적인 것에는 빈혈증에 걸렸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눈물의 회개가 부족하다. 기도가 없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과연 ‘성도’라 말할 수 있는가 자문하게 된다. 기도가 차올라야 배가 출항할 수 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앞에 두고 금식한다는 것을 그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육적인 것을 다 끊어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살아 보겠다고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물을 붓고 금식하며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다. 지금 그들은 전쟁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기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은 것”이라고 했다.

저자는 이어 “E. M. 바운즈는 짧지만 살아 있는 기도를 하라고 했지만 자신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세 시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쏘아 올리는 영적인 기도를 했다. 과연 우리 생애에 이런 기도를 드러 본 것이 언제인가?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자문해 보기 바란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속에 회개의 눈물이 말라 버리지는 않았는지, 생명을 거는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위대한 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하나님은 보석 같은 은혜를 주셨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꼭 기억하기 바란다. 어떤 상황이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나아가

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다. 우주 여행까지 계획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전 세계의 하늘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선포한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앞드린다. 이 책을 통해 납작 앞드린 당신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류응렬牧사는 한국의국 어대학교에서 영어를, 동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고든콘웰신학교에서 성경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남침례신학교에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고든콘웰신학 대학원 객원 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에베소서 설교하기>, <창세기의 사랑하는 책>,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플랫폼>, <납작 앞드리기> 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류응렬 저
두란노 | 260쪽

목회자가 사랑하는 목사의 기도 안내서

위기 때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 납작 앞드리는 것 밖에 없다

[5월, 작가들의 말말말②]



◆ 어윈 W. 루체(저자), 모영은(옮긴이)-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인간의 비통 앞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존재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다. 인간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의심에 대처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토론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몇몇 신학자만큼 하나님의 평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분명히 바람, 비, 땅의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한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이 세세하게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든, 사나운 바람이 불든, 폭풍우가 몰아치든,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고 갔다.

둘째, 이것들은 대부분 심판이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불복종에 대한 그분의 증오를 표

현하는 수단이었다. 구약성경 시대에, 이러한 심판은 일반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전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악마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자연에 맞서 싸우게 하신다. 자연은 하나님의 감독하에 있지만 우리는 질병과 재앙과 싸우도록 초대받았다.

◆ 양태석-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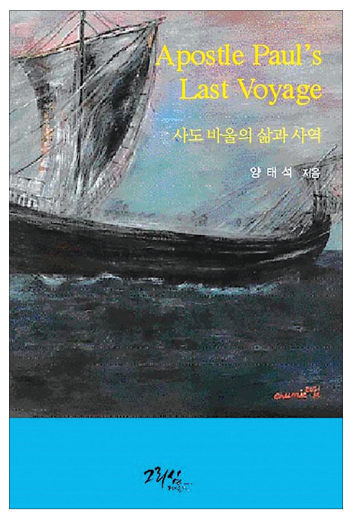
필자가 본 저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서울장신대를 졸업할 무렵 언제인가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한

사도행전 27장을 연구하고 싶은 꿈을 가졌었다. 그 후 해군에서 함장으로, 상선에서 선장으로, 선원 선교사로 일하면서 늘 마음속에 그에 대한 꿈을 키웠다. 특별히 선장으로 지중해와 흑해지역을 여러 번 항해 할 때 바울 사도가 항해한 지역을 지나면서 연구하려는 마음을 다들었다. 그래서 터키에 입항 할 때는 터키 지역의 지도를 수집하고 에게 해와 이오니아 해역에 있는 항구들들 기항하게 되면 해당지역의 기상자료와 해도들을 수집하였다.

본 저서는 신학적인 부분은 가급적 다루지 않으며 일반 성도들일지라도 읽기 쉽게 기록하였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저술하였지만 바울에 관

한 직접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9장부터 다루었다. 바울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 바울을 역사 무대 위로 등장시킨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다루었다.

최승연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下)

〈닥터 스트레인지〉,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기독교적 이유

대중문화, 중층적 정체성 표현 위해 장르 뒤섞기 시도
성경, 확고하고 일관된 정체성과 세계관 정립 중요시
포스트모던 문화, 성경 가르침 인간 본성 위배 판단해
삶 이루는 시공간은 오직 하나, 다른 가능성 불가능해

◆장르의 불협화음: 슈퍼히어로와 호러 장르 결합으로 표현된 정체성 혼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서사는 주술사 스트레인지와 스칼렛 위치 완다의 정체성 혼란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샘 레이미 감독은 이 정체성 혼란을 표현하기 위해 다중우주의 다른 자아들을 등장시키는 동시에, 두 개의 영화 장르를 뒤섞어 놓는다.

샘 레이미는 2000년대 초 소니 픽처스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감독으로 명성을 얻기 전, 1980-90년대 〈이블 데드〉나 〈다크맨〉같은 B급 호러, 스틸러 영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자신의 장기간 호러, 스틸러 장르 연출방식을 사용해 서사의 긴박감을 높였다.

이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장르들을 뒤섞어 놓는 것, 장르 간 불협화음을 이용해 오묘한 조화를 느끼게 해주는 방식은 포스트모던 예술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포스트모던 예술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표현 양식 또한 인간 인격과 세계의 혼란스러우면서도 중층적인 본질을 나타내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다원적 요소들의 충돌을 통한 혼돈과 조화라는 주제 의식을 반영하는 문화예술 양식은 오늘날 대중문화 조류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의 대중은 고전예술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캐릭터도, 서사도, 그리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확고한 일관성을 보이는 고전예술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전예술은 삶의 현실을 중시하는 까닭에 상상력을 절제하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력 활용을 장려하는 오늘날 세대에 익숙해진 이들에게는

갑갑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이전에는 일부 매니아들만 심취하던 판타지, 오컬트, 슈퍼히어로, SF 영화나 드라마가 현재 대중문화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장르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역사적 사건이나 실화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들도 기록된 실제 사실에 의존하기보다는 작가나 감독의 상상력을 통해 완벽하게 재구성된 서사를 선보이는 데 치중한다.

일례로 1980년대 한국에서 제작된 사극 드라마, 영화와 2000년대 이후의 사극은 완전히 다른 연출 방식을 선보인다. 이전의 사극이 논픽션에 픽션 요소를 부분적으로 채택했다면, 현재의 사극은 픽션이 주를 이루는 서사에 일부 논픽션 요소를 일부 가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고전예술 가운데 오늘날까지 크게 각광받는 분야가 있다면 신화와 전설이다. 초월적 세계 혹은 이면 세계에 대한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인 상상력을 선보이는 신화와 전설은 표현방식 및 주제 의식 측면에서 포스트모던 예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최근 대중문화 콘텐츠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포스트모던 문화조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준다.

성경은 신앙인으로서 확고하고 일관된 정체성과 세계관을 정립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포스트모던 문화 조류의 관점으로는 이러한 가르침이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과 삶의 정황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정되기 때문이다.

◆가능성의 불협화음: 신앙과 불신앙이 뒤섞인 중층적 인격의 위험성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권유하는 인간상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되게 지키는 인간이다.



슈퍼히어로와 호러 장르를 섞은 마블의 새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중층적이고 다원적인 인격 형성을 당연시하는 오늘날 문화 조류는 성경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충성되고 신실한 인간상에 위배된다. 성경 안에서 중층적 인격을 가진 인간이란 신앙과 불신앙이 뒤섞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따르기를 포기하는 이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는 여로보암, 신약에는 마술사 시몬 같은 이들이 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국왕으로 옹립되었지만, 정치적 계산에 따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웠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섬기려는 생각으로 신앙과 우상숭배를 절묘하게 뒤섞은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우상숭배 전통을 세운 악한 왕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왕상 11-14장).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른 종교적 가르침을 뒤섞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술사 시몬(행 8:9-24)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은혜를 마술의 능력처럼 취급해 사도 베드로에게 엄한 경고를 받았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과 이교적 주술을 뒤섞어 추구했던 마술사 시몬은 성경에서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로 소개됐을 뿐 아니라, 훗날 기독교 교부 유스티누스와

이레니우스의 저서에서 기독교 계통 영지주의 이단의 창시자로 지목된다.

이처럼 성경은 신앙인이 인격의 다원성 혹은 종교적 다원성을 추구할 때 뒤따르는 위험성을 누차 경고한다. 성경에서 신실하고 본받아야 할 이들로 소개되는 신앙인들, 대표적으로 사도들을 보면 그 인격과 심성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들어 일관되고 순전하다.

그런데 이런 심성은 오늘날의 문화조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자연스럽다. 다양한 사상과 전통을 접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정황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으로 비치는 것이다.

오늘날 대중문화에 적용된 포스트모던 문화 조류는 삶에 배태된 다양한 가능성을 존중한다. 이는 에버렛이 제안한 다세계 해석의 근본사상이기도 하다.

다양한 삶의 가능성이 모두 현실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하나도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의 인격에서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다세계 해석에 기반한 인간 이해이다.

단적으로 말해, 다세계 해석 안에서는 슈퍼덩거의 고양이와 같이 힘써 신앙을 지켜나가는 내가 존재하는 세계도 있고, 신앙 없이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 세계도 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는 양자 얽힘의 원리를 따라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신앙인 속에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만드는 신앙의 삶에 위배되는 모든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성경의 세계관과 인간 이해에 따르면 삶을 이루는 시공간은 오직 하나일 뿐이며,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하면 다른 가능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경은 반드시 신앙으로 무장된 삶의 가능성을 선택하고 불신앙으로 기우는 삶의 가능성을 무력화할 것을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비롯한 최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들은 다중우주 이론과 다원적 인격을 수긍하는 인간 이해를 기반으로 서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서사 자체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근저에서 서사를 뒷받침하는 세계관과 인간 이해, 그리고 서사의 전개 방식이 성경에서 권장하는 인간 이해 및 세계관과 상충된다. 이것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